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주 52시간제’ 개편안…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총량 단위로
휴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구분	내용
근로시간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연장근로 총량 기준 감축 노사 합의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
주 단위 (최대 6일)	최대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2시간
월 단위 (1개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12시간×4.345주) 연장근로 총량 100%
분기 (3개월)	140시간, 주 평균 10.8시간 156시간(52시간×3개월) 대비 90%
반기 (6개월)	250시간, 주 평균 9.6시간 312시간(52시간×6개월) 대비 80%
연 (1년)	440시간, 주 평균 8.5시간 625시간(52시간×12개월) 대비 70%

연합뉴스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 유공공무원 포상과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기념패도 전수했다.

이번 행사에서 ㈜와이제이씨가 동탑산업훈장, 두영실업㈜이 산업포장, ㈜세림전자 및 ㈜죽암엠앤씨가 대통령 표창, (유)신정주포장은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8명, 세무서장 표창 24명 등 총 76명에게 광주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표창장을 전수 및 수여가 이뤄졌다.

윤영석 청장은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과 납세 홍보를 통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9일까지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19일까지 ‘13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0여명을 선발한다.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이메일(1021982@kjbank.com)로 지원하면 된다.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을 지원하고, 우수 팀 및 홍보대사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3기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4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브랜드 홍보,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활7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젊음의 에너지로 광주은행 ESG 활동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환열 광주은행 ESG공헌부장은 “광주은행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다양한 대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지표	수치
↑ 코스피	2462.62 (+30.55)
↑ 코스닥	816.51 (+14.09)
↓ 금리 (국고채 3년)	3.774 (-0.017)
↓ 환율 (USD)	1296.90 (-4.70)

역세권·자연친화적…‘위파크마륵공원’ 분양

호반·라인·해동건설 917세대…특화설계·인프라 장점

호반건설과 라인건설, 해동건설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일대 ‘위파크마륵공원〈조감도〉’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파크마륵공원은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총 917세대 규모다. 전 가구를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와 135㎡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타입별가구 수는 ▲84㎡A 373가구 ▲84㎡B 159가구 ▲84㎡C 47가구 ▲84㎡D 114가구 ▲135㎡ 224가구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 1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21일이고, 계약 기간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단지 주변 상무대로, 운천로, 서광주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광주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고,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이 가까운 데다 2026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는 등 교통망을 갖췄다.

또 대규모 공원을 가까이에 둔 자연친화 단지로, 전체 22만㎡의 부지 중 약 17만㎡가 마륵공원으로 조성된다. 마륵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 선호도 높은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데다, 시청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특히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도 들어설 계획이다.

위파크마륵공원의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956-7에 마련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